

“한·미·일 협력으로 인·태지역 자유·평화 증진 기여”

윤 대통령, 확고한 대북 억지력 강조
뉴욕 체류하며 47개국 정상 만나
2030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 호소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국제평화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간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NCG)’을 충실히 이행해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해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지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는 2024-25년 안

보리 이사국으로서 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개발협력 수원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의지 표명, 무탄소(CF)연합 출범 제안,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 등 유엔 총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과 관련해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군 장병·경찰·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철환 기자



외국인 학생들도 즐거운 웃놀이 25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교환학생과 함께하는 한가위 체험 한마당 행사’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웃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연 3만5000명 받는다

법무부, 기존 2000명서 대거 늘려

법무부가 산업 현장 경쟁력 강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인재에게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포인트 E74)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K-포인트 E74’는 △4년 이상 국내 체류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등의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3만 5000건까지, 기존 비자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바꿔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간 쿼터는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까지 늘어난다.

비자 전환 대상자가 되려면 평가지표 총점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가산점 포함)을 받아야 한다.

가산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 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비자 취득 후에는 최소 2년 이상 추천 기업체에 근무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면 동반 가족 초청 등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니제르서 군대·외교관 철수 프랑스, 군사협력 중단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군대와 외교관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로이터·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TF1과 2TV 인터뷰에서 모하메드 바준 니제르 대통령에게 이처럼 통보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사와 몇몇 외교관들을 즉시 프랑스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며 “니제르 당국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하고, 군대를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 조성사업 탄력

보훈부·국토부, 보훈문화 확산 협약

국가보훈부(보훈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보훈 문화 확산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면서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장교 5숙소에서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복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훈이 곧 국격’이라는 인식 아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을 기

억하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감대에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 보훈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호우회, 국토부 청년정책자문단 등 미래세대 청년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협약의 핵심은 두 부처가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 조성 등 보훈을 주제로 한 공간 조성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지난 8월부터 ‘용산공원추진위원회’에 보훈부 장관을 포함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항목에 ‘보훈 시설’을 추가했다.

앞으로 두 부처는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이 예정된 국립서울현충원 등 ‘국가

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기본구상’과 같은 구체적인 조성계획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닿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두 부처는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전용 차량 번호판 도입,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국도변 졸음쉼터 여유 부지를 활용한 보훈공원 조성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임대 단지 내 ‘희망상가’ 공급, 통합복지카드 통행료 감면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까지 확대, 상이 국가유공자 대상 ‘명절 철도 승차권 우선 구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실무협의를 거쳐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채무 기자

남극 이상고온에 연구원들 반바지 입었다

작년 3월 기온 평년보다 39도 높아

남극에 작년에 닥친 이상고온 수준이 지구 신기록이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대의 지구과학자 에드워드 블랜처드-리글워스는 작년

3월 남극 기온을 분석한 이 같은 보고서를 미국 지구물리학회(AGU) 회보에 게재했다.

보고서는 작년 3월 18일 남극 동부 해안에서 기록된 기온이 평년보다 무려 섭씨 39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남극에서 3월은 가을에 들어가는 시점으

로 평년기온은 영하 50도 정도지만 작년 3월 18일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치솟았다.

이는 남극의 한여름 기온보다 높은 수치라서 놀라움을 자아냈다.

WP는 당시 남극에 있던 연구원들이 비교적 온난한 날씨에 웃통을 벗거나 반바지 차림으로 다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남극의 당시 이상기온이 지구 온난화보다는 남극 날씨 자체의 변덕성 때문이라고 봤다. 연합뉴스